

정례브리핑

2021.8.20.(금) 10:30, 차덕철 부대변인(통일부)

안녕하세요?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일부 장차관은 특별한 외부 일정 없이 부내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볼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통일부 코로나19 방역관리 상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부내에서 확진자 발생 이후 통일부는 강화된 자체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방역 상황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2주간 전반적인 대외 일정은 최대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고 직원들의 재택근무 비율도 50%까지 확대하며, 동일 공간 이외의 직원들 간에는 업무협의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등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남북관계 관련 북한의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9시 남북통신연락선 정기통화 시도에 대해서는 북한 측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또한, 8월 11일 김영철 부장 담화 이후 북한당국의 추가적인 입장표명도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모두말씀을 드리고요. 사전에 질문 주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오늘은 5건의 서면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코백스에서 북한에 중국 시노백 백신 300만 회분을 배정했는데, 우리 정부도 코백스를 통해서 북한에 기여할 계획이 있는지요?

<답변> 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공동대응은 남북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남북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협력 방식과 관련해서는 남북 간 직접 협력과 글로벌 차원의 협력 두 가지 모두 가능하며, 국내 백신 수급 상황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에 북한이 공식적으로 참여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는 대통령께서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을 하였고, 지난해 12월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 등 6개국으로 출범을 하였으나 북한은 아직 이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로서는 북한이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 견인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 6월 결정된 이산가족 화상상봉장 증설 진척 상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현재 남북 이산가족 상봉 가능성이 낮은 데도 불구하고 기존 13곳의 화상상봉장을 7곳이나 추가해 건설한 게 혈세낭비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아울러, 올해 추석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변> 정부는 가장 시급한 인도적 사안인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계기 때마다 강조해 왔습니다.

이산가족들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 그리고 이산가족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역별 설치 필요성, 코로나19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남북 간 비대면 방식의 이산가족 교류로서 화상상봉 인프라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남북관계 복원 시 언제라도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화상상봉장 증설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긴요한 일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대북전달을 위해 구입해둔 장비들을 활용하여 설치를 하였기 때문에 예산절감 측면에 있어서도 최대한 고려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화상상봉장 증설공사는 8월 중으로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추석 계기 이산가족 화상상봉 개최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

해진 바가 없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내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방한기간 중 통일부 관련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관련 사항은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민간단체의 대북사업지원안 결정을 위한 교추협 일정은 정해졌는지요?

<답변> 정부는 남북 간 인도주의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는 별개로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국내 민간단체들의 인도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왔습니다. 향후 추진될 민간단체의 대북인도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 구체적인 방식 등은 교추협 심의 등을 통해서 결정될 계획입니다.

다만, 교추협 개최 일정은 코로나19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최 일정이 확정되면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이것으로서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